



기독교대한감리회

청파교회

교회세운날 1908.5.1

함께 지어져가는 우리

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
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
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

주 일 낮 예 배 순 서

【 송년주일 】

(선찬양 301장)

인도 : 김재홍 목사

전 주	반주자
임재의 기원 626.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(x3)	다 함께
예배로의 부름	인도자
경배의 찬송 14. 주 우리 하나님	다 함께
공동기도	다 함께

자비하신 하나님,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주님의 은혜 덕에 지나온 1년이었습니다. 주님께서서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셨고 비대면 상황이라 만날 수 없던 우리를 예배를 통해 하나로 이어주셨습니다.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여러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셨습니다. 비록 힘든 상황은 많았지만,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지치지 말고 가야 할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.

주님, 송구영신의 시간을 앞두고도 좀처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. 팬데믹의 혼란과 대선정국의 소용돌이로 정신을 차리기가 힘듭니다. 지나온 삶을 진솔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전망 속에서 환히 열린 앞날을 보게 해 주십시오. 여러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보를 근거로 바른 판단을 해나가게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참회의 침묵기도	다 함께
위로의 말씀 시 62:1,2	인도자
교 독 문 71. 이사야 55장	다 함께
영 광 송 2. 찬양 성부 성자 성령	다 함께
대표기도	하현철 장로
찬 양 305. 나 같은 죄인 살리신	다 함께
성경봉독 시113:1~9	김명하 집사

“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”

“하나님, 감사합니다”

다 함 께

특 송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청파찬양대 남성 중창
 말 씀 **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** 김기석 목사
 거둠기도 다 함께
 찬 양 397. 주 사랑 안에 살면 다 함께
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
 평화의 인사 다 함께
 보냄의 말씀 다 함께

인 도 자 : 교우 여러분,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.
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과 자신을 높이던 삶을 멈추십시오. 거짓
 신과 자신을 높일수록 우리의 삶은 초라해진다는 사실을 잊지
 마십시오.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높이며 사십시오. 그럴
 때 우리의 삶은 절로 올곧게 설 것입니다.

다 함 께 : 아멘. 나의 욕망과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며 정신없이 살아온 지
 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. 바쁘게는 살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.
 다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. 주님의 뜻을 따라 나를 낮추겠습니
 다. 어려운 이웃들을 귀히 대접하며 그들이 떳떳하게 살도록 힘
 켜 돕겠습니다. 주님,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. 아멘

찬 양 635. 주의 기도 다 함께
 축 복 김기석 목사

	설교	기도	성경봉독	인도
다음주	김기석	김기석	김광일	이범석

-  청파교회 페이스북 <https://www.facebook.com/chungpachurch/>
- 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-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'예배실황' 클릭
-  청파교회 카카오톡 채널 : 친구검색창에 '청파교회' 검색 후 채널 추가
- ※ 헌금계좌 : 새마을금고 9002-1751-3375-3 (예금주 : 청파교회)

